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총회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비전 2000운동 8월 19일 개최 주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도”

우리 교회는 8월 19일(월)부터 28일(수)까지 “비전 2000운동”이라는 새벽기도운동을 전개한다. 비전 2000운동은 2천년대의 역군이 될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올바로 확립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도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도록 하고자 계획된 것이다. 아울러 이 운동은 8월 22일(목)부터 27일(화)까지 우리 교회가 주최하는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

대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모두 10일 동안 기도를 중심으로 전개될 이 운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도”라는 주제와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라는 표어 아래 진행될 예정이다. 8월 18일(주일) 저녁 7시에 전 군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된 비전 2000운동은 매일 새벽 5시에 이종윤 위임목사를 강사로 하여 기도회를 갖고, 전국시민 총동원의 날인 25일(주일)에는 총현의

모든 교인들이 나와 함께 기도할 예정이며, 26일(월)에는 금식을 하게 된다. 이때의 금식은 북한 지교회 설립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 운동 기간 동안에는 전도회별, 다락방별, 교회학교별로 전도 운동도 전개한다. 이렇게 진행되는 비전 2000운동은 28일 수요일 부 예배시 승전감사예배를 드림으로써 모두 막을 내리게 된다.

오늘 저녁 7시 하기 농어촌전도대 파송식

91년도 하기농어촌전도대 파송을 두 주 앞둔 오늘, 저녁 7시에 파송예배를 드린다. 올해는 모두 8개 전도대 120명이 우리 교회의 지교회로 파송되며, NMC 병원전도단은 부산, 마산 등지의 병원을 순회하면서 전도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전도대원들은 70인전도대는 남녀전도회원, 교회학교 교사 및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도위원회(위원장 우기전 장로)는 이번에 파송될 전도대원들을 위한 훈련과 기도회를 오는

20일(토) 오후 4시 베다니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아직도 우상숭배가 심각한 농어촌지역에서, 악의 세력들에 대항하면서 전개할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 위해선, 전리로 허리띠를 매고, 복음으로 신을 신고, 기도 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준비 훈련과 기도회를 갖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전도대원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할 것이다(전도대원 명단은 4면 게재).

본 교회 등록 청년이면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 등록 가능

제1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 준비위원회는 이 대회에 참가할 청년들의 등록을 받고 있다. 본 대회에는 우리 교회에 등록된 총현 청년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준비위원회는 총현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주최측의 청년들답게 이 대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2천년대를 향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해외 방송설교 확산기로 성도들의 후원 요망

지난 5월부터 미국 시카고 한인방송의 전파를 타고 있는 이종윤 위임목사의 방송설교가 교포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지에서도 방송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 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총현 성도들의 후원 아래 방송설교의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교포들에게 순수한 복음주의적 신앙을 전수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현 성도들은 기도와 물질로 이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이 글은 지난 제2차 김치(KIMCHI)세미나에 참석한 필리핀성경신학교 교장 요셉 사오 목사가 우리 교회 위임목사 앞으로 보낸 서신의 발췌문이다.

존경하는 이종윤 목사님 귀하

김치(KIMCHI)세미나에 참여한 필리핀 대표단을 대신하여 본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인 은혜와 귀하와 귀 교회의 뜨거운 환대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중략)

7월 29일부터 중국 복음화를 위한 세계 대회(제4차 CCOWE)에서 본인은, 귀 교회가 중국 복음화를 위하여 행하신 제2차 김치(KIMCHI)세미나를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로 전 세계에서 모여온 중국계 목사, 장로, 집사 및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커다란 충격과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중략)

필리핀의 대표적 교회라고 알려진 성 스테반 교회의 목사이신 추 후왕코 목사님은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금요철야기도회를 시작하였고 매일 새벽 6시에는 새벽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합복음주의교회의 카야오 목사는 매일 새벽 6시 15분에 흥쾌작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은 귀 교회의 김치(KIMCHI)세미나 참가자들로부터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대에 모범적인 교회로 세우신 귀 교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귀하로부터 배운 모범적 목회 사역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2차 김치(KIMCHI)세미나의 결과는 여러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귀 교회의 김치(KIMCHI)세미나가 세계 복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더 많은 지도자들이 귀 교회를 통하여 영적 충격과 모범적 사역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1991년 7월 9일
요셉 사오 드림

동구권 선교 시찰단 내일 출국

위임목사 세계신약학회 참석

원로목사 독일서 특별성회인도

이종윤 위임목사는 독일 뮌헨에서 7월 29일부터 열리는 제46차 세계신약학회(SNTS) 참석차 15일 출국하여 8월 3일 귀국 예정이다.

이 목사는 동구라파 복음화를 위한 선교 자료 수집과 현지 지도자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16일부터 22일까지 한 주간 동안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폴란드를 방문하게 되며 22일부터 체코슬로바키아의 칼비나(모라비아)에서 열리는 동구라파복음화대회에 참여하여 강연을 하게 된다. 이 대회는 우리 교회의 제1차 김치(KIMCHI)세미나 참석자들에 의해 조직된 것으로써 우리 교회로부터 대회 조직 및 재정 지원을 받아 동구라파 개방 이후 최초의 대규모 대회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

회에는 우리 교회 김창인 원로목사를 위시하여 전호진 목사(고신대 교수),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공산 치하에서 오랜 핍박 끝에 햇빛을 본 새싹 같은 동구의 교회들에게 영적인 응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대회를 위해 위임목사와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행하는 이들은 김학진 목사, 이조웅 목사, 마일수 목사, 박철환 장로, 오정수 장로, 김연이 전도사, 김춘권 집사, 김인숙 집사, 김성관 집사이다.

현편 김창인 원로목사는 동구권복음화대회 후 7월 29일부터 독일의 뉘른베르크(홍경수 목사 시무)와 프랑크푸르트(정석진 목사 시무) 교회에서 특별 성회를 인도하신 후 8월 10일 귀국하게 된다.

제2회 목회자세미나 제2학기 종강 제3학기는 9월 2일부터

지난 5월 13일부터 10주 동안 배와 설교 사역을 연구하였다. 진행된 제2회 전국 목회자 제3학기는 아래 일정에 따라 세미나 제2학기가 15일(월) 종 “목회자와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강한다. “예배와 설교”라는 주제 때, 9월 2일에 속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참가 목회자들은 올바른 예

	제 1 교 시		제 2 교 시	
	오후 2시~3시 30분		오후 3시 50분~5시 20분	
9월 2일	성경적 교회론 이종윤 목사 (총현교회 위임목사)	목회자의 영성 개발	정진경 목사 (신촌성결교회 담임목사)	정정숙 교수 (총신대학교 교수)
9월 9일		교회학교 성장 방안	은준관 교수 (연세대 신과대학 학장)	한경직 목사 (영락교회 원로목사)
16일		교역과 교육	정일용 교수 (총신대학원 교수)	이연옥 박사 (여성지도자 계속교육원 원장)
30일		성경적인 목회자상	오인택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	이영덕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10월 7일		교회학교 교사 자질 개발	이종윤 목사 (총현교회 위임목사)	이조웅 목사 (총현교회 위임목사)
14일		목회자의 가정 생활	이종윤 목사 (총현교회 위임목사)	이조웅 목사 (총현교회 위임목사)
21일		교회학교 교재의 현황과 개발	이종윤 목사 (총현교회 위임목사)	이조웅 목사 (총현교회 위임목사)
28일		기독교 교육과 인간 이해	이종윤 목사 (총현교회 위임목사)	이조웅 목사 (총현교회 위임목사)
11월 4일		제자훈련의 원리와 방법 모델	이종윤 목사 (총현교회 위임목사)	이조웅 목사 (총현교회 위임목사)
11일		제자훈련의 효율적인 교육 방법 목사(총현교회 위임목사)	이종윤 목사 (총현교회 위임목사)	이조웅 목사 (총현교회 위임목사)

>제4차 흥해작전 새벽기도회 설교 요지<



야고보서강해(7)

이 중 윤 위임목사

본문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롬3:28). 이를 보고 성경의 내용이 상충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차이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첫째, 본문은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약2:14)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강조한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은 가짜 신앙입니다(약2:15).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책임과 아울러 이웃을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약2:16) 따라서 우리들은

야고보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과 경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허탄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아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약2:20) 허탄한 사람이란, 말은 많이 하는데 도무지 행함이 없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의 깨우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허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합니다(고전2:14).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눈 앞에 모시고도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열쇠를 가지고 잠겨 있는 문을 열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허탄한 사람은 잘못된 선입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대개 두 가지 유형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믿기 위해 질문을 하거나, 믿지 않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모호하고 건전하지 않은 질문이나

제9일

신행일치(1)

(약2:14~19)

기회있는 대로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갈6:10).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는 믿음은 잘못된 신앙인 것과같이 이웃 사랑없는 신앙 또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약2:19)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막1:24,3:11). 그래서 지옥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

불어 화평을 누리자”(롬5:1)

뿐만 아니라, 자기로부터 들어키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한 신앙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이하를 보면,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점쟁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 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힘을 입어 이적을 행하자 자기도 그런 권능을 받을 수 없겠느냐면서 돈을 주고 그것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으나,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자기를 묻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자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둘째, 어리석은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약2:18)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참믿음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의하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 참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참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채, 인본주의적 동기에서 구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위의 결여는 신앙의 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를 이용하여 배를 움직일 때 두 개의 노를 균형있게 저어야 배가 제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는 일치해야 합니다. 신앙의 교훈과 행함의 열매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골1:10)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딤후1:16)

제10일

신행일치(2)

(약2:20~26)

토론은 경건한 신앙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단념해버릴 뜻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 나갑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는 참신앙을 가진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신앙과 행위가 함께 나와야 한다는 것을 신앙의 원리로 삼았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약2:22) 아브라함의 신앙은 신앙이라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는 주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행위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앙

의 원리가 신행일치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있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믿음없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절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언약의 성취를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과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 다. 이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 그는 은혜를 받은 자처럼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습니다(약2:23; 대하20:7; 사41:8). 이 특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요15:

15). 이 놀라운 특권은 믿음이 아니고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또한 본문은 기생 라합을 통해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사회적 신분이 천민으로,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는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벧후1:3)

오늘 우리 가정의 환경이나 어떤 배경이나 조건이나 경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철저하게 죄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은 상천하지(上天下地)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신앙고백을 하였습니다(수2:11). 이러한 라합의 고백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도와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다 함은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판만 가진 신앙은 아무 소용없고, 활용하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산 신앙인지 죽은 신앙인지는 말씀 반응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나 가야 하겠습니다.

I.

주후 59년 늦 가을이었다. 로마로 가기 위해 유대지방의 가이사라 항구를 출발한 일단의 무리가 있었다. 처음에는 아시아 연안을 항해하는 '아드라뭇테노'라는 배를 타고가다가 도중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만나 승선하게 되었다. 이 배는 아프리카 북부지방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싣고 로마로 가는 곡물 수송선이었다.

순조롭게 항해하던 이 배가 그레데 섬 부근에서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14일 동안 방향을 잃은 채, 해와 별을 보지 못하고 흑암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276명의 승객들은 다만 생명만이라도 건지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이때 불꽃없는 죄수 한 사람이 그들을 향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나에게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나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한마디가 울려 퍼질 때마다 청중들은 안정을 되찾아 갔고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그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었

>특집<

제1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

복음 위해 헌신할 전천후 일꾼의 양육을 소망하며

김 해 규 목사
(대학부 지도)

다. 이제 비천한 죄수 바울은 감시당하는 죄수가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들의 생명을 맡은 자가 되었다.

II.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 난파선과 같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다. 더 나은 기술과 복지향상도 아니다. 더군다나 인간들끼리의 대화나 협상도 아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외치는 바울이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울 같은 일꾼이 없다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인간을 키우는 것이다. 물론 일꾼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일꾼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복음화와 문화번

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냉정히 되돌아볼 때 과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가?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런가?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의 몫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꾼의 책임도 있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하고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복음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이상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길러서는 안될 것이다. 뚜렷한 역사적식과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어코 복음을 전파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전천후 일꾼", "전천후 지도자"

를 키워야 할 것이다. 기성세대는 이미 세속화되어 있고 새 시대의 주역이 되지는 못한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새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지 않았던가.

III.

현대인들은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를 호흡하며 살아간다.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 복음화의 사회 변혁이라는 우리의 사명도 어느 한 단체, 한 국가의 교회만으로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바울은 자신이 꼭 협력 사역을 하는 동시에 각 교회가 복음을 위해 일심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다(빌 1:27). 이것은 바울의 바람 이전

에 예수님의 명령이요 교회의 원리이다. 우리 모두는 인종, 피부 색깔, 언어, 문화의 차이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one body)가 아닌가. 일본 교회의 지도자 빈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심사요 우리의 일이다.

이번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는 이러한 의미에서 너무나 뜻깊고 중요한 기획이다.

IV.

우리는 이번 대회를 개최하면서 젊은이들처럼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언제나 사건의 본질을 추궁하며,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요시한다.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터놓고 대화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서로의 장점을 나누고 약점을 보충시키려는 진지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V.

아무쪼록 이번 대회를 통해 참석하는 젊은이들이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영적 각성을 일으켜 자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일꾼이 되고 미래세대의 지도자로 훈련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하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충현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차량부에서 봉사하는 제가 주일이나 흥해작전과 같은 특별새벽기도운동 때, 차량 안내를 하면서 날로 증가하는 출입 차량수를 통해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처럼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질서의 하나님이기도 한 그분의 자녀들답지 않게 주차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교회는 "은혜와 질서"를 주제로 제4차 흥해작전을 전개하면서 질서의 생활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일은 거룩하게", "생활은 검소하게"와 함께 "질서는 내가 먼저"를 행동강령으로 내걸었습니다. 충현의 성도들은 질서작전이기도 했던 금번 흥해작전을 통해서, 은혜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강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흥해작전을 기해서 충현

성도들의 질서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쯤에서 만족해서는 아니됩니다. 질서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를 통해서 우리들은 세상에서 또 하나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차량부에서는 충현인들이 질서를 생활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주차장이나 차량 통행이 적은 곳에서 승·하차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앞에 주차할 때는 앞바퀴를 일직선으로 하고 기어를 중성에 놓아둡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먼저 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며, 보행자는 길 양측을 이용하여 통행합니다. △주차장에서 어린이를 놀지 못하도록 하고 차 안에 어린이들만 남겨두지 않습니다. △차량안내요원들과 웃음의 인사를 나눕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질서를 무시한 채 나만 편하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생길 때, 그런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내 이웃이 어떤 불편을 겪게 될지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첫 단계인 질서를 생활화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 됩시다.

● 독자 제언 ●

점차 향상되는
충현인의 질서의식

박 치 민
(차량부장)
장로

라 전체의 고민거리로 등장한 것이 이미 오래 전의 일이라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고 보면, 질서의 생활화는 성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이

■ 선교지 소식 - 홍콩

기도운동으로 홍콩을 복음화하리라

지난 6월 16일 파송장을 받은 뒤, 임지 홍콩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은태 선교사가 그간의 활동을 담은 서신을 보내왔다.

홍콩의 복음화는 중국인의 복음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북한 선교에 대한 또 하나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바울 사도처럼 복음에 빛난 자라는 심정으로 자신을 드리겠다는 결심이 대단하다.

임지에 도착하자마자 주일의 낮예배와 저녁예배는 물론이고, 새벽기도회,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를 신설함으로써 온 교회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부흥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7월 초부터는 대심방을 시작하는 등 쫓겨나 향해 진력하느라 더위도 느끼지 못할 정도다.

아쉬운 점은 아직 교회 장막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홍콩충현교회는 7월 한 달 동안 특별 기도를 하고 있다. 또

한 어느 선교지나 마찬가지겠지만, 잦은 교인들의 유동은 홍콩충현교회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김 선교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영적 각성과 복음주의적 부흥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자극제가 되고 있다.

한국 교회 부흥의 원동력인 기도운동이 홍콩에서도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김 선교사가 고온다습한 기후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 기도제목

1. 하루 속히 교회 건물이 가장 적합한 장소에 정해지도록.
2. 교회 조직과 일꾼을 잘 세울 수 있도록.
3. 새벽기도회에 20명 이상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부흥이 일어나도록.
4. 교회 설립 인가와 비자 문제가 속히 처리되고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재수를 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시기에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요11:40)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저의 재수 기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재수기간 동안 약속의 말씀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형의 권유로 매일 아침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30분 동안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읽는 말씀과 기도가 하루하루의 삶에 큰 힘이 되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났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샘솟아 터져나왔습니다. 재수하는 동안 큰 문제는 지

하고 싶은 학과가 없다는 것과 시력이 좋지 않아 눈의 피로를 자주 느껴 공부하는데 많은 장애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기도 제목이 대학에 합격하여 주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일꾼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비하신 학과에 진학하는 것과 눈이 아프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자의 난

일꾼으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이 길 찬 학생
(대학부 2년)

학과 선택은 원서를 쓰는 기간에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어졌고 친구들의 지원학과도 신경쓰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으로 흔들

리는 저의 마음을 진정시켜주셨습니다. 지금의 학과가 적성에 맞고 흥미 또한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교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5년 되는 노총각 교수님이시지만 주님께 헌신된 분이십니다. 요즘에는 매주 수요일 6시에 같은 학과 크리스찬 모

임을 교수님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만나는 우리들은 은혜받은 말씀과 한 주간의 생활을 발표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풍성한 시간인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재수하는 동안 눈이 아파서 공부에 방해가 많이 되었는데, 난

시 증세가 심해서 그랬다는 것을 작년 11월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 인하여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71) 라는 시편 기자가 고백이 재수하는 삶을 통해서 저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에 입학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했으면서도 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하고 싶은 것 다 해보면서 대학의 낭만을 즐기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재수 기간 동안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학 4년 동안은 당신께서 기쁘게 쓰시는 일꾼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학 4년 동안은 당신께서 기쁘게 쓰시는 일꾼으로 준비하는 일에 전심전력 하라는 강한 열망을 심어주셨으며 시간의 귀중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저를 구원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업인선교회 내일 저녁 7시에 신입회원 환영회

실업인선교회(회장 남선우 장로)가 오는 7월 15일(월) 저녁 7시 베다니홀에서 신입회원 환영회를 갖는다. 이 환영회는 지난 6월 25일 은혜 가운데 마친 특별강연회에 새로 등록한 60여명의 회원들을 환영키 위해 마련된 것인데, 실업인선교회는 우리나라 실업계의 복음화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한다.

소망부

오늘 성경퀴즈대회

소망부(부장 김재명 장로, 지도 김양홍 목사)는 오는 21일(주일) 갈릴리홀에서 성경퀴즈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명의 말씀을 지표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다.

새가정부 특강

“크리스찬의 여가 선용”

새가정부(부장 최상규 장로, 지도 최인근 목사)는 오늘 오전 11시 소석관 201호, 202호에서 홍창민 목사(교육담당)를 초빙하여 “크리스찬의 여가 선용”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비전 2000 운동 참모조직

교회는 비전 2000운동을 은혜 가운데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모조직을 구성하였다.

사령관 : 이종윤 위임목사
고문 : 김창인 원로목사
참모장 : 최석주 장로
부참모장 : 김영구 목사, 김방진 장로
기획참모 : 송태근 목사, 임필성 장로, 노문환 장로, 김정자 전

도사, 전홍열 집사, 전성실 집사
행정참모 : 김성운 목사, 정광호 장로, 김천재 장로, 정연희 전도사, 황영일 집사, 박효지 집사
예배참모 : 윤용규 목사, 김재명 장로, 최순복 전도사, 최기홍 집사, 박인건 집사, 김석순 집사
동원참모 : 최인근 목사, 노광현 장로, 구명신 전도사, 김형선 집사, 홍명순 집사, 대학부 서기, 청년1부 서기, 청년2부 서기, 청

년3부 서기
봉사참모 : 오진국 장로, 최명자 전도사, 김구형 집사, 염숙현 권사, 현계식 권사
홍보참모 : 정기봉 목사, 김광신 장로, 장혜순 전도사, 채수경 집사, 김광호 집사
수송참모 : 신표근 목사, 박치민 장로, 김여순 집사, 김규종 집사

'91 하기 농어촌전도대원

파송지역	교회명	지도	대장	대원
경기여주	금현교회	안경소 목사	오인근 집사	권사 : 고정임, 박갑래, 박윤석, 윤순진, 이연순, 이의복 집사 : 장영창, 전용배 교사 : 이금호, 전성실
강원인제	서현교회	김양홍 목사	김영달 집사	권사 : 박순복, 변순복, 신차식 집사 : 김명권, 김창호, 박경렬, 백운홍, 강신자, 김숙기, 노순옥, 박정숙 교사 : 박순희, 오미라
경기연천	재현교회	장경철 목사	이인영 집사	권사 : 이지영 집사 : 김시주, 이복규, 허관수, 설명동, 윤배, 강순자, 김정자, 김효정, 신희순, 신혜자, 최경희, 최영애, 한명숙
강원인제	부현교회	김용기 목사	김영수 집사	권사 : 김남진, 김순희, 김종자 집사 : 김재홍, 김영길, 김창국, 이숙득, 이은경, 이희순, 임광희, 조희순
강원정선	신현교회	이홍성 목사	윤광원 집사	권사 : 반정현, 필기복 집사 : 이인범, 최정남, 윤송숙, 전옥희, 차창숙 교사 : 심진경, 양영경, 오규창, 이하늘, 조우숙, 조종진
충북영동	서송원 충현교회	김광국 목사	김단용 집사	집사 : 박찬섭, 신부근, 이요섭, 박정원, 이경희, 장남희, 정금선, 정영희, 정정숙 교사 : 김진미, 고은빈, 박은영
강원임제	용산교회	신표근 목사	김민철 교사	권사 : 김희정, 백옥심, 임봉옥 교사 : 김동철, 김미정, 김영미, 오경희, 전국영, 최성창, 최진우
부산,마산	병원 순회	김천근 목사	고경훈 교사	교사 : 김경아, 강은선, 김기원, 김신영, 이미리, 이수경, 마미경, 이기영, 황태섭, 황성우, 윤현선, 이재욱, 정문자, 정은영, 이자영, 이진구, 안현희, 정희경, 조영숙, 조현숙, 정희정, 성기원, 박준선, 황옥수

영혼 소생과 은혜 체험의 계기되는 수양회 계속



성경학교나 수양회는 어느 교회나 개최하고 있는 교회의 대표적인 행사 중 하나이지만, 우리 교회의 금년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양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충만함으로 열기가 대단하다.

지난 주에는 장년3부(부장 마성락 장로, 지도 윤영탁 목사)와 대학부(부장 이훈 장로, 지도 김

해규 목사)가 합동신학교와 충현 기도원에서 각각 수양회를 가졌다. 이들은 부흥회, 산상기도, 노방전도, 친교의 시간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단비로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

내일부터는 중등2부(15일~18일), 청년3부(16일~17일), 장년1부(16일~17일), 초등1~5부(16일~18일), 청년2부(16일~18일), 사랑부(17일), 영아부(17일~18일), 중등1부(18일~20일)가 성경학교 및 수양회를 갖는다.

광야의 소리

◎... 이종윤 위임목사, 김창인 원로목사를 포함한 동구권 선교사들이 내일 출국 예정. 원색적인 복음 선교의 기회가 되도록 온 교회는 계속적인 기도를 책임져야...

◎... 동양 제일의 웅장하고 큰 석조 건물 우리 교회. 그러나 아직도 청결이 더 요구되는 건물 구석구석. 내 집보다 더 잘 보살피는 애정이 아쉽다.

◎... 제13기 70인전도대원 374명 수료식 거행. 저들의 전도 열기로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볼 수 있는 날도 멀지는 않으리...